

“여성운동 차원 성폭력 적극 대처”

‘성폭력상담소’ 13일 문열어

성폭력 사건의 피해 여성들을 돕기 위한 ‘한국 성폭력 상담소’(대표 최영애)가 오는 13일 서울 서초동에서 문을 연다.

이화여대 대학원 여성학과 출신의 대학강사 50여명이 발기인과 창립회원으로 참여, 지난해 8월부터 준비작업을 벌여온 국내 첫 성폭력문제 전문상담기관이다.

한국 성폭력 상담소는 90년부터 성폭력 피해 여성에게 쉽터로 개방돼온 ‘여성의 전화’에 뒤이은 여성문제 전문상담 기관으로서, 여성문제의 주요한 영역이면서도 공개되지 않았던 성폭력의 사회학적 원인과 실태에 적극적으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표 최영애(40)씨는 “여성학 전공의 회원들이 사회적 실천과 여성운동을 병행해 나가기 위해 상담소를 열게 됐다”면서 “상담을 통해 실질적으로 도와주고 여성들이 당하는 차별과 피해도 이러한 시각에서 접근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성폭력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향락산업·성의 상품화 풍토·이중 성구조·남성중심의 사회

관행 등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폭력의 만연으로 인해 흉악범뿐 아니라 친구, 직장동료, 평소 아는 사람에 의해서도 성폭력이 일어나는 요즘 세태를 감안, 성폭력을 전담하는 여성경찰과 검사제도의 마련도 절실하다고 최씨는 덧붙였다.

한국 성폭력 상담소는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과 성폭력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여성을 위한 상담 및 조사·연구활동, 청소년·성인 대상의 성교육, 성폭력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형법 개정운동을 펴나갈 계획이다. 또한 의료인, 검찰, 치안본부와 유대관계를 맺고 24시간 운영하는 ‘종합위기센터’를 건립할 목표도 세우고 있다.

강간, 추행 등 여성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되는 성폭행 사건들은 가장 쉽게 일어나는 성범죄이면서도 여성에게 요구되는 순결우위의 가치관과 성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인해 대부분 은폐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실제로 80년 이래 경찰에 신고



상담·조사·교육 주력...형법 개정운동도

이화여대 대학원 여성학과 출신 50여명이 창립회원

경찰등과 연계 ‘종합위기센터’ 건립추진

되는 성폭력 사건은 연평균 5천여건으로, 발생건수의 약 2.2%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성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덮어두려고 노력할 뿐 아무런 법적, 제도적 보호를 못받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형법에 ‘정조에 관한 법’과 강간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긴 하나 성적인 희롱, 추행 등의 성폭행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는 상태이다.

13일 오후 3시 이화여대 중앙당에서 개소식을 가질 한국성폭력상담소는 15일부터 상담을 받을 예정이다. 전화상담은 월~금요일, 면접상담은 화·목요일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받는다. 전화는 522-1042.

정식 개원하지는 않았지만 여성들이 상담전화를 할 정도로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역할에 거는 기대가 크다.

〈곽윤섭 기자〉

발기인 50여명이 알팍한 시간 강사 강사료를 쪼개 서초동에 18평짜리 오피스텔을 전세냈다고 밝힌 상근 스태프 이미경(군산대 강사)씨와 정경자(광운대 강사)씨는 “여성문제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후원회원의 문호를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신연숙 기자〉